

◆ 북미

- A.M.Best, 국책 모기지업체 주식으로 인한 보험사의 손실 경고
- 유가 상승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 유럽

- 英 자동차 중개회사들, 지급보장보험(PPI) 불완전판매로 제재받아
- Swiss Re,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새로운 파트너십 필요성 강조

◆ 일본

- 일본 AIG스타생명과 AIG에디슨생명, 내년 1월 합병 결정
- 손보재팬, 개인보험사업 업무혁신 프로젝트에 300억엔 투입

◆ 중국

- 중국 보험회사, 부동산투자용 자금 1,000억 위안 준비
- 중국 빅3 보험회사, 상반기 실적 부진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A.M.Best, 국책 모기지업체 주식으로 인한 보험사의 손실 경고

- 보험전문 평가기관인 에이엠 베스트(A.M.Best)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매(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의 주식을 보유중인 몇몇 보험사가 이들 업체의 주가하락으로 큰 손실을 기록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대부분의 미국 보험사들은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주식보다는 채권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에 대한 정부의 구제방안은 보험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정부가 이들 업체에 대한 구제방안을 실행할 경우 채권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이러한 우려로 인해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주가는 8월 들어 50% 하락했으며 연초에 비해서는 90% 가까이 폭락했음.
- 미국 보험사들 중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는 하트포드(Hartford), 젠워스(Genworth)와 올스테이트(Allstate)등인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채권은 3,700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주식은 상대적으로 적은 40억 달러에 그쳤으나 보험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주식이 몇몇 회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함.
 - 하트포드는 지분의 2.9%인 5억 달러 상당의 패니매와 프레디맥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젠워스는 1% 정도를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남.
 - 올스테이트는 6월말 현재 1억 2,800억 달러의 패니매와 프레디맥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Insurance Journal, 8/25)

□ 유가 상승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 미시건대학 교통연구소에 따르면 최근의 유가 상승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
 - 올해 유가는 갤런 당 4달러를 넘어섰으며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6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음.
 - 지난 10개월간 월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에 비해 평균 4.2% 감소하였으며 특히 3월과 4월에는 각각 22.1%, 17.9%의 감소율을 나타냈음.
 - 연구를 진행한 시박(Sivak)박사는 이러한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가 운행거리 감소와 함께 운전패턴의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함.
- 유가상승이 교통사고 감소에 영향을 준 이유로는 불필요한 운전 자제, 10대 및 고령자의 운행 감소, 경제속도 유지노력 등이 제시됨.
 - 운전자들은 출퇴근 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율이 높은 야간이나 주말운전을 자제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고율에 영향을 미침.
 - 또한 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10대 및 고령의 운전자들이 휘발유 가격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유가상승은 이들의 운전을 억제했으며 결과적으로 사고율을 낮춤.
 - 마지막으로 기름값을 절약하기 위한 운전자들의 감속운행도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함.
- 시박박사는 3,4월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961년 이후 처음으로 37,000명 이하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미국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61년 36,285명을 기록한 후 1972년 55,600명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20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지난주 고속도로교통안전협회(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는 2007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41,059명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지난 10여년 중 가장 낮은 숫자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연방도로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은 지난 6월 미국인들의 월간 총 운전거리가 전년대비 122억 마일 감소했다고 발표함.

(Insurance Journal, 8/26)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英 자동차 중개회사들, 지급보장보험(PPI) 불완전판매로 제재받아

-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은 지급보장보험(Payment Protection Insurance)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자동차 중개회사들에게 175,000 파운드(한화 약 3억 5,000만원)가 넘는 벌금을 부과함.
 - GK 그룹, 조지 화이트 모터스(George White Motors), 링웨이즈 거라지스(Ringways Garages), 팩스 오브 해밀턴(Park's of Hamilton) 등의 자동차 중개회사들은 자동차와 오토바이 대출과 연계된 지급보장보험을 불완전 판매하여 총 2,175명의 고객들에게 피해를 줌.
 - 상기 중개회사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들의 기왕증이나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 보장 내용 등의 정보파악에 소홀히 함으로써 고객에게 불필요하고 나중에 보험청구도 할 수 없는 지급보장보험을 판매하였음.
 - 또한 가입시 고객들에게 주의사항 고지와 완전판매 여부를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 못했던 사실도 이번 제재의 중요 사유임.
-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실직시 빚(모기지, 대출, 신용카드 등)을 변제(repay) 해주는 지급보장보험이 최근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
 - 청구비용이 지나치게 비싸고 애초에 청구할 수 없는 고객들에게 판매한 사례가 다수 있음.
 - 올해 초 영국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가 발표한 지급보장보험 시장 관련 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지급보장보험 시장 특성 때문에 고객들은 일 년에 약 14억 파운드(한화 약 2조 8,000억원) 상당의 과다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함.
 - 모기지, 대출, 신용카드와 연계된 지급보장보험 판매중지 조치와 더불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가격상한제도(price cap) 도입이 현재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음.

(Scotsman, 8/25)

□ Swiss Re,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새로운 파트너십 필요성 강조

- 세계 제 1의 재보험회사인 스위스 리(Swiss Re)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민-관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이 절실하다고 언급함.
 -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국제재난리스크컨퍼런스(The International Disaster and Risk Conference)에서 피터 포스트모저(Peter Forstmoser) 현 스위스 리 그룹 회장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들이 개발도상국가들에게 많은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간 파트너십이 연계된 다양한 전략들이 요구된다고 연설함.
 - 기상재해로 인한 재정적 손실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민-관 리스크 전가(risk transfer)가 필요하며, 이는 정부, 개발은행, NGO등이 보험과 기타 여러 자본금융상품들을 통해 레버리지(leverage) 할 수 있게 함.
 - 그는 16개 카리브해 국가들이 허리케인 및 지진 발생시 단기유동자금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2007년도에 창설한 카리브해 대자연재해 보험기구(Caribbean Catastrophe Risk Insurance Facility)를 이상적인 파트너십의 한 사례로 언급함.
- 스위스 리는 아울러 개발도상국가들은 기상재해 피해에 대응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더욱 절실하다고 역설함.
 - 2030년에 이르면 이른바 기후변화 적응비용(climate change adaptation)이 전세계적으로 1년에 약 490억~1,710억 스위스 프랑(한화 약 48조원~169조원)이 소요되며, 그 중 개발도상국가들이 약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스위스 리는 정부차원 내지는 국가 공동으로 리스크 전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리스크관리 책임자(Country Risk Officer)를 두어 극심해지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함.

(Business Insurance, 8/25)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일본 AIG스타생명과 AIG에디슨생명, 내년 1월 합병 결정

- 일본에서 영업 중인 미국 AIG그룹 산하의 AIG스타생명보험과 AIG에디슨생명보험은 지난 29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양사는 합병에 대한 각사 주주총회의 승인과 금융청의 인가를 얻어 「AIG생명보험」으로 2009년 1월 1일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며, 재무기반의 안정성과 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화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개인보험시장에서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전략임.
 - 자본금 965억 900만 엔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AIG생명보험」의 회장에는 스타생명의 토모노 유키오 사장이, 사장에는 에디슨생명의 카타오 사장이 임명될 예정임.
 - 또한 양사는 대등 합병을 하고 합병에 따른 정리해고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힘.
- 에디슨생명은 1999년에 파산한 도호(東邦)생명보험을 스타생명은 2000년에 파산한 치요다(千代田)생명을 AIG그룹이 인수하여 설립된 회사임.
 - 양사는 영업직원을 중심으로 개인보험을 판매하는 비지니스모델을 채택하고 있어 합병 후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함.
- 합병 후 규모는 수입보험료 6,737억엔(2008년 3월말, 양사 단순 합산)으로 일본 내 15위, 총자산 규모는 13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 AIG는 일본에서 영업 중인 알리코재팬도 소유하고 있으나 알리코재팬은 스타생명, 에디슨생명과는 달리 통신판매를 중심으로 의료보험 등에 주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3사의 합병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힘.

(산케이신문, 8/30)

□ 손보재팬, 개인보험사업 업무혁신 프로젝트에 300억 엔 투입

- 손보재팬은 보험금 부당 미지급 문제의 재발 방지와 저출산 고령화로 축소되는 일본 내 손해보험 사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 손해보험 사업을 혁신하는 「리테일 비즈니스모델 혁신 프로젝트(PTR)」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발표함.
 - 이는 상품개발이나 보험인수, 사고대응 등 업무 전반에서 IT를 활용하여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전략임.
- 손보재팬은 작년 8월 「혁신 기획실」 부서를 신설해 혁신 추진을 본격 시작하였음.
 - PTR은 약 300억 엔을 투자하여 시스템 환경을 정비하였으며 상품개발에서 보험금 지급까지 개인 손해보험 사업과 관계되는 모든 업무에 대한 내부체제 강화를 도모함.
 - 혁신을 담당하는 사토루 상무 집행임원은 「종전에는 영업부문이 주축이었으나 이번 혁신은 업무·IT부문이 중심이 되고, 상품개발에서부터 사고 처리까지 모든 업무체제를 혁신의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함.
 - 구체적으로는 주력인 자동차보험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며 상품개발측면에서는 상품별 차이가 나는 업무절차의 통일이나 상품 간소화를 실시함.
 - 영업측면에서는 대리점 업무의 시스템화 등으로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사고 처리에서는 시스템 상에서 처리 상황에 대해 공유화를 도모했으며, 향후 화재보험 등 타 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임.
- 이와 같은 업무혁신은 도쿄마린니치도(東京海上日動)화재보험이나 미츠이스미토모(三井住友)해상화재보험 등이 먼저 시작한 바 있음.
 - 이는 보험금 부당 누락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강화가 요구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으로 일본 내 손해보험 시장의 축소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임.

(FujiSankei Business I, 8/26)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중국 보험회사, 부동산투자용 자금 1,000억 위안 준비

- 지난 8월25일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보험업법 수정안이 최종 확정됨.
 - 이번 수정안에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범위 한도 내에서 부동산투자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범위에 은행예금, 정부/금융채,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형태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정부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자금지원이 절실한 부동산시장에 보험자산을 구원투수로 등장시켰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임.
- 보험감독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말 현재 보험회사가 운용 가능한 자산은 약 2조 7,000억 위안(한화 약 43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많은 다른 국가들은 보험회사 자산의 5~10% 범위 내에서 부동산투자를 허용하고 있음.
 -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중국 보험업계가 부동산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은 최소 1,000억 위안(한화 약 16조원)에서 최고 2,000억 위안(한화 약 32조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대규모 자금은 주택시장보다는 오피스빌딩 시장에 집중될 가능성이 큼.
 - 초기에는 보험회사 스스로 필요에 의해 자가용 건물 매입을 주로 하다가 점차 투자수익을 노리는 형태로 바뀔 것으로 예상됨.

(21세기경제보도, 8/29)

□ 중국 빅3 보험회사, 상반기 실적 부진

- 지난 주 발표된 빅3 상장보험회사의 상반기 실적이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보험업종이 직격탄을 맞음.
 - 특히 중국핑안(中國平安)과 중국타이바오(中國太保)에 이어 발표된 중국런서우(中國人壽)의 성장율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빅3 보험회사 모두 수입보험료는 크게 증가했으나 증가폭이 하락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됨.
 - 중국런서우는 1,820억 위안(한화 약 29조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두어 들어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성장했지만 순이익은 108억 위안(한화 약 1조 7,2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6% 감소함.
 - 같은 기간 중국핑안 역시 순이익이 12.2% 감소한 반면 중국타이바오는 순이익이 44%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감.
- 빅3 보험회사들이 수입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은 금년 초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주식시장과 무관하지 않음.
 - 중국런서우는 올해 들어서만 약 50%의 투자수익율 하락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핑안은 64%까지 하락한 상태임.
 - 투자수익의 하락은 회사 전체 이익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영업부분에서 거둔 실적이 빛이 바랜 상황임.
 - 특히 최근 수개월 동안 베이징, 상하이 지역의 의외상해보험 수입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증가한 것은 올림픽 기간 동안 경기를 관람하는 관람객들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CCTV, 8/26)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7년말	08.8.22(금)	08.8.29(금)	전주대비
금리 (%)	韓 국고채(3년)	5.74	5.81	5.77	-0.04
	美 10년국채	4.03	3.87	3.81	-0.06
	英 10년국채	4.51	4.57	4.49	-0.08
	日 10년국채	1.51	1.45	1.42	-0.03
주가	韓 KOSPI	1,897.13	1,496.91	1,474.24	-1.5%
	韓 KOSDAQ	704.23	483.47	470.28	-2.7%
	美 DJIA	13,264.82	11,628.06	11,543.55	-0.7%
	美 Nasdaq	2,652.28	2,414.71	2,367.52	-2.0%
	英 FTSE100	6,456.90	5,505.60	5,636.60	2.4%
	獨 DAX30	8,067.32	6,342.42	6,422.30	1.3%
	佛 CAC40	5,614.08	4,400.45	4,482.60	1.9%
	日 Nikkei225	15,307.78	12,666.04	13,072.87	3.2%
	中 상해종합	5,261.56	2,405.22	2,397.37	-0.3%
	대만 가권	8,506.28	6,911.64	7,046.11	1.9%
	홍콩 항셱	27,812.65	20,392.06	21,261.89	4.3%
환율	원/달러	938.2	1,061.90	1,089.00	27.10
	원/100엔	833.33	968.86	987.90	19.04
	엔/달러	112.58	109.95	108.70	-1.25
	달러/유로	1.4722	1.4812	1.4727	-0.0085
	위안/달러	7.3041	6.8339	6.8290	-0.0049